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82.57 (-49.09)	710.52 (-18.32)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900 (-0.001)	1407.45 (+12.75)

metro® 경제



202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경기침체, 짝 막힌 내수 K푸드 훈풍타고 해외로

AI 열풍에 GPU 품귀... '슈퍼컴퓨터' 구축 차질

(그래픽처리장치)

식품업계 생존전략

〈중〉글로벌 진출 러시

식품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해외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K-푸드 열풍에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전개해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라면 업계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대신 해외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1~10월 농식품 누적수출액 조사에 따르면, 라면 수출액은 10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으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중남미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9% 증가했다.



베트남 후지(FUJI) 마트 내 하이트진로 단독 매대에 소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매출 확보를 위해 지난해 베트남에 첫 해외 공장 설립을 결정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모습이다. 하이트진로는 과일 소주와 일반 소주 두 트랙 전략으로 현재 80여개국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류회사 'E&J 갤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미국 소주 시장에 진출했다. 미국 전역의 주류 전문 판매점 약 1만곳에 '처음처럼 순하리' 등 소주를 입점시키며 판매 채널을 대폭 확대한 것. 소비자가 많이 찾는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채널에도 입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새로 살구'를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기 시작하며 글로벌 고객을 만나고 있다.

제과업계 '빅3'인 롯데웰푸드와 오리온, 크라운해태도 해외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출 비중이 24%인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매출 비중을 35%까지 늘린다. 2035년까지 빼빼로를 글로벌 톱10 브랜드로 키우고, 매출 1조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리온은 올해 상반기 60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국과 2166억원을 기록한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계획했다.

내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온 크라운해태는 제과 기업 중 해외 매출 비중이 10% 이하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부, 예산 대폭 증액해 사업 재개 민간협력 안정적 공급망 확보 시급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불균형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국가 초고성능컴퓨터(슈퍼컴퓨터)6호기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업 재개에 나섰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AI 기술 발전이 가속되면서 AI 반도체 공급 문제는 각국의 주요 현안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국가 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했던 슈퍼컴 6호기 사업은 AI 열풍으로 인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 급등으로 네 차례나 유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사업비를 기존 2929억원에서 4483억원으로 53% 증액하고, 서비스 개시를 2026년 초로 연기했다.

◆ 전 세계가 겪는 'AI 반도체 품귀'

AI 반도체 품귀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산업의 급성장하면서 각국은 반도체 확보와 자체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는 AI 관련 작업량과 컴퓨팅 수요가 2027년까지 연간 25%에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인앤드컴퍼니 기술 실무 책임자는

"GPU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특정 요소에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며 "GPU 수요 증가와 PC 교체 주기를 가속하는 AI 기기의 물결이 만나면 칩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자국 반도체 자급률 높이는 해외... 국내는 아직

한국이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인 화웨이, 알리바바 등을 통해 자체 GPU를 개발해 AI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현재 '선웨이(Sunway)', '텐허(Tianhe)' 등 자국산 부품으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K푸드 열풍 타고 해외시장 개척 라면·주류 등 글로벌 매출 상승

삼양, 해외사업이 전사 실적 견인 오투기, 수출국 70개 나라로 확대 하이트진로, 소주로 80개국 공략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70% 육박하고 있어 해외 사업이 전사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심은 지난달부터 미국 2공장의 신규 라인을 가동하고 월마트 매대를 확대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무산에 수출 전용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생산역량 확보에도 나섰다. 삼양식품은 해외 판매법인을 늘리고 있다. 일본·중국·미국·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는 네덜란드 판매법인을 설립해 유럽 공략 의지를 보였다.

오투기는 라면 수출국을 65개국에서 7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며, 최근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류업계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진로(JINRO)의 대중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해외시장 소주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이트진로 지난해 연간 해외 수출액은 1666억원이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중장기



2500선 무너진 코스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2500 밀로 주저앉았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09포인트(1.94%) 내린 2482.5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32포인트(2.51%) 하락한 710.52에 마감표를 찍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4.7원)보다 8.8원 오른 1403.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

내수 회복 지연... 올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KDI, 경제성장률 예측치 2.2% 석달 전 전망 대비 0.3%p 내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2%로 바꿔 제시했다. 이는 불과 석달 전 전망 대비 0.3%포인트(p) 후퇴한 것이다.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늦어진 금리인하 시점 등을 하향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데 그칠 것

으로 내다봤다. 2%대 중반 도달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올해 8월 제시한 2.5%에서 0.3%포인트(p) 내렸다. 앞서 5월에는 2.6%까지 예상한 바 있다.

4월부터 9월까지의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GDP는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이른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0.2%)와 3분기(+0.1%)에는 성장세가 사실상 멎었다.

이날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올해 성장률을 조정하는 것은 내

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졌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KDI의 예측치는 기재부 전망인 2.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2.5%, 한국은행의 2.4%보다도 낮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홍준표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부부 목... 즉시 수사 의뢰하라" /사진 뉴시스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27일 정년 연장 정책토론회 개최

▲ 시코르스키 'CH-53K', 군대형헬기사업 도전장... "한국서 생산할 것"
▲ 조태열 "트럼프 정책 방향, 우리의 비전과 일맥상통"



▲ 복리 모두 조약 비준... 정부 "파병 공식화 가능성 주시"
▲ 한 총리 "내년 6월 간호법 시행... 의료 선진국 발돋움 디딤돌 될 것" /사진 뉴시스